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타운홀미팅

사회복지사 질의응답 정리

연번	내 용	비 고
1	청년 생활 SOC 확충 사업 중 청년주거안정사업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p>우리시는 든든한 군산, 청년과 함께 하는 자립도시를 위해 우리시에 맞는 맞춤형 주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금융 지원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청년에게 지난 2022년 8월부터 월 최대20만원씩 최대24개월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한시가 아닌 지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입니다. 군산시 내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중이거나 입주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최대 3천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완화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 이차지원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하고자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우리 시는 청년이 마음 편히 정착하고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p>	
2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 전담인력 배치계획, 장애인 지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p>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등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는 것으로, 26년 3월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p> <p>첫 번째로, 현재 통합돌봄팀은 전담인력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6년 7월 이후로 통합돌봄 필요인력에 장애인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논의중에 있습니다.</p> <p>두 번째로, 본 사업의 장애인 기준은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장애인 30명을 목표로, 전체 목표인원 대비 10%에 불과하나, 현재 시범사업 신청대상자 66명 중 장애인은 21명으로 31.8%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는 장애인 비율이 10%가 아닌 그 이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p> <p>또한, 군산시는 11개 자체 특화서비스를 개발하여 추진중이며, 이 대상자는 노인과 장애인을 구분없이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장애인과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연번	내 용	비 고
3	<p>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군산시만의 돌봄 포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을까요?</p>	
	<p>군산시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돌봄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민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한 번에 비교·선택할 수 있는 통합 정보체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p> <p>서울시의 「우리동네 키움포털」은 돌봄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시민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 우리 시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p> <p>다만, 서울시는 인구 약 930만 명의 대도시로 연간 유지·운영비만 약 3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를 우리 시 인구 규모에 단순 적용할 경우 연간 약 840만 원(2.8%) 수준의 유지비가 산출되나, 실제 도입 시에는 구축 비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p> <p>이에 따라 군산시는 서울시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단계적·축소형 모델을 중심으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p> <p>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돌봄 정보 제공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p>	
4	<p>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가요?</p>	
	<p>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처우개선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p> <p>여러분은 일선의 현장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시민 곁을 지키는 전문가이자 복지의 핵심 인력입니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감정노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p> <p>이제 군산시는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은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p> <p>단기적으로 수당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근무환경, 인력 구조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p>	

연번	내 용	비 고
5	<p>시장님이 생각하는 복지 기본사회 추진 계획이 궁금합니다.</p>	
	<p>군산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를 목표로 골목경제를 지키고 미래산업을 유치하는 등 산업경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p> <p>또한 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주환경 개선에도 힘써왔습니다.</p> <p>안정적인 시민의 삶을 위해 돌봄 공백해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p> <p>작은 불편을 예방하고 즉시 해결하는 것이 곧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이며,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이기도 합니다.</p> <p>우리 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사업과 오늘의 생활을 지키는 복지 행정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며, 시민 여러분께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고, 도시에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6	<p>청년의 유출을 막기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p>	
	<p>우리 시 현재 분양 중인 공동주택은 총 7개 단지 4,592세대이며, 이 중 831세대가 미분양으로 분양률 81.9%입니다.</p> <p>우리 시의 주택시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미분양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 3개 단지 1,646세대 공급 이후 현재까지 신규 공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p> <p>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투기 발생 냉각으로 인한 미분양주택 발생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 또는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는 경우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분양 등을 사유로 공급량, 공급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없습니다.</p> <p>참고로,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지역별 미분양 등 주택시장 동향 점검을 통해 미분양 관리 지역을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는 2023년 3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고, 2024년 6월 9일부터 현재는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p> <p>또한 우리 시는 도시 기본계획상 계획인구를 45만명에서 26만 4천명으로 변경하여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억제하고, 은파 주변 지곡동 일대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22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과 개발사업이 병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